

발간사

지난 해 2000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대전환을 이룬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희망의 새 천년을 여는 첫 해이자 동시에 우리 민족이 분열과 대결을 마감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과 번영을 향해 나가는 첫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문제들을 협의·이행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협의체로 각종 분야별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액이 총 4억 2,515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경협 관련 4대 합의서 타결 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례의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실현된 것을 비롯하여 생사확인, 서신교환과 상봉면회소 설치 등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개·폐회식에 남북선수단이 동시 입장함으로써 전세계인을 감동시켰는가 하면, 언론사 사장단 방북,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왕래를 통해 상호신뢰 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남북간 인적왕래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7,98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속에 북·미, 북·일과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고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실리를 추구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들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사고」를 강조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북한 변화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1년에 남북간 평화와 협력이 본격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올해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추진하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를 시행하고,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북한의 변화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상생(相生)의 경제공동체 건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확대하고 상봉면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제도적 해결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협정 체결 추진 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속에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평화와 화해, 협력과 번영을 향해 나가는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분열과 대결로 지속된 5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적지 않은 난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이에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과 신축성을 조화시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01 통일백서」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이룩한 작년 한해의 대북정책 성과와 통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책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1년 2월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